

숲 정 이

교구계간지

1년 구독료 : 10,000원
후원계좌
전북 505-13-0313012

쌍백합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2007년 12월 30일 (가해)

강론 ...

대화가 필요해



이동 신부
(신봉성당 주임)

모 방송국의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대화가 필요해'라는 꼭지가 있다. 여기에는 말수가 적은 조용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대화가 사라지고 가족끼리의 소통이 부족한 집안풍경을 담아내고 있다.

무뚝뚝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말수가 적은 아들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서 서로에게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보여 주는 대사가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내는 요소가 된다. 일례를 들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루 종일 나가 싸 돌아다니다 배고프면 들어와 밥만 먹는다고 화를 내며 당신은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 다그친다. 어머니는 나도 모르겠다며 "아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소연 한다. 그러면 이번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다. "너 솔직히 이야기 해봐. 밖에 나가 하루 종일 뭐했어?" 아들이 대답한다. "학교 다녀왔는데요" 이 대목에서 관객과 시청자들은 폭소를 터뜨린다.

그러나 그냥 재미있다고 하며 맘껏 웃어 버리기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코미디 한 꼭지가, 결국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부재된 가족해체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제도로서의 가정이 급격히 쇠퇴해 가고 있어서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현주소를 보면서 자신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사회적 성공과 동일시하며 일 자체를 곧 자신이라 여기지는 않는지?

부모들 자신조차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에 따라 자녀를 등급 매기며 자녀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결과 우리 스스로가 정신적으로는 가정을 떠나 있어 가족 해체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에게 일이란 그리스도인 사명의 일부이며 우리가 하느님에게 봉사하는 한 방법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수행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는 가정을 희생한 대가로 주어지는 사명이자 봉사가 되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인 <가정공동체>를 보면 가정공동체 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거저 줌(Free Giving)'의 법칙을 따른다고 말한다. 이 거저 줌은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가치의 유일한 기반으로 하여 진심으로 받아들임, 만남과 대화, 이해를 따지지 않는 협조자세, 관대한 봉사, 깊은 유대의 형태로 나타나며 가정이 사회를 인간화하고 인격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원초적인 장소라고 가르친다.

원초적 장소(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들 안에 은총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며 거룩한 표지들을 발견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정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밥상 앞에 앉아 "밥묵자"라고만 해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찾기 위해, 가족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일상의 삶과 마음을 나누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간의 대화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가 되도록 하자.

바실 대성인(329-379)

윤 클레멘트 신부

동방교회 수도승들의 주보인 바실 대성인은 카파도치아(터키)의 체사레아에서 태어났다. 우리 교회는 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중에서도 여럿을 성인들로 칭송하고 있으니, 바실 대 성인의 가정이 그 얼마나 거룩한 가정이었든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한 수도규칙을 쓰는데, 그 수도규칙은 후일 동방교회의 수도승들의 삶에 근간을 이루는 규칙으로 된다.

그는 370년에 체사레아의 주교로 임명받는다. 그는 자신의 주교직을 수행하면서 아리아니즘[Arianism: 예수그리스

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 이설자(異說者)들을 말함]과 성직자들의 부패(腐敗)에 대하여 과감하게 싸운다. 그는 방대한 활동들과 자비와 나눔의 일들에 헌신한다.

그는 체사레아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또한 콘스탄티노플과 아테네에서도 공부를 계속한다. 그가 아테네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친구 한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곧 나치안츠의 성 그레고리오 성인이다. 그 후로 바실 대성인과 그레고리오 성인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는 많은 저술들과 강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했다. 그는 엄격한 내핍생활과 과로의 영향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교회는 그를 '교회의 박사'로 선포하고 기념하여 왔다. 그가 세상을 떠난 1월 1일에 동방교회에서는 그를 기념하고, 그가 축성생활로 봉헌한 1월 14일에 서방교회에서는 그를 기념한다.

그는 체사레아에서 용병술과 실천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열고 자신이 직접 몇 년간을 가르친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떠난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라서 사막으로 찾아오고 그는 폰투스(Pontus)에 수도원의 문을 연다. 그는 자신의 수도원에서 만 5년간 자신의 제자들을 지도한다.

그는 부유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론하였다.

그의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것들의 근간은 성서에 바탕을 두는 것이었다. 언어는 희랍어를 사용했지만, 항상 성서가 그 중심에 있었다. 후일 바실 대성인식 교육학은 성 베네딕토 규칙을 통해서 서방수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신들 손가락에 끼인 그 금가락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채무자들이 당신 손가락에 낀 금가락지 하나로 감옥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이 입은 예복 하나로 입을 옷들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뜨는 뽀뽀로 데이와 지는 농민의 날

11월 11일은 '농어민의 날'이다. 이날은 또한 뽀뽀로 데이이기도하다. 우리에게 농어민의 날보다는 뽀뽀로 데이가 더욱 익숙한 듯 하다. 올해 농어민의 날 행사는 노동자와 농민이 공동행사로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로 열렸다. 시청 앞 광장은 온통 노동자 농민과 이를 지지하려는 전경들로 가득했다.

경찰이 톨게이트에서 농민대회 참가자들을 원천 봉쇄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우리 전주교구 농민회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경찰들을 따돌리고 서울 시청을 향하였다. 가는 톨게이트 마다 전경, 경찰들이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다. 모든 관광버스는 톨게이트를 통과할수 없게 경찰들이 막았던 것이다. 평화시위를 하려해도 미리 막는 경찰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앞섰다.

생각보다 많은 노조원과 농민들이 참여 하였다. 대학생, 고등학생들 모습도 보였다. 농민들과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에서 전율이 느껴졌고 몽클한 마음이 솟아났다. 당당하게 인간답게 살아야한다고 하는 외침들을 들으며 힘이 솟아났다.

화장실이 급해 잠깐 백화점에 들렀다.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들의 가격을 보고 놀랐다. 옷 한 벌을 사기위해서는 쌀 한가마니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서울사람이라 그런지 세련되고 이쁜 사람들이 많았다. 그와는 반

대로 시청앞 광장에서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들로 춥고 배고파 보였다. 한가족이 아스팔트에 앉아서 라면에 김밥을 먹고 있었다. 줌전에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람과 대비가 되며 아름다움의 의미가 달라 보였다. 따스한 라면국물에 맛있어 하는 모습에 뿌듯함이 솟아났다.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외쳐댄다 “야 이놈들아”라고. 그 목소리는 세상을 향해 사회적 모순에 대한 외침이자 절규였다. 그건 욕이 아니었다. 너무 너무 시원했다. 내안에 있는 모순된 사회현실을 토해 낸듯 한 기분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우우~~하며 박수를 치는데 정말 속이 다 후련했다.

날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노동자와 농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가진자들은 더욱 배부르게 된다. 뽀뽀로 데이는 연인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어가고 농민의 날은 국민들에게 더욱 잊혀져가는 날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이 차가운 겨울날씨에 빈부격차가 없고 모두가 잘살고 서로 사랑하여 모든 이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였으면 한다. 그 따스한 겨울을 위해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매일매일 오길 희망해 본다.



김지영(마르띠나)
농촌사목 사무국장

입당송 루카 2,16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도다.

제1독서 집회 3,2-6,12-14

회답송 시편 128(127), 1-2,3,4-5(◎ 1참조)

◎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은 모두 행복 하리라.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 환호송 콜로 3,15-16

◎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음 마태 2,13-15,19-23

영성체송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어울리셨도다.

● 이병호 주교 극빈자 가정 방문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지난 12월 19일(수) 교구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들을 방문해, 그들의 고통과 어려운 처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며 금일 봉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한 가정은 이 마리아 할머니를 비롯 총 5가구였다. 이번 방문에는 교구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돌보고 봉사하는 '가정방문실' 수녀 2명과 사회사목국장 장상원 신부가 동행했다. |김동욱 기자

● 호성동 성당 음악을 나누는 성탄맞이



지난 12월 17일(월) 호성동 성당(주임=김태운 신부)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지역민과 교우들에게 한 해를

조용히 정리해 보고 다가오는 성탄을 보다 기쁘게 맞이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날 음악회는 김태선 형제가 이끄는 전주챔버오케스트라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라는 이름으로 매년 실시해 오는 본당 행사다. 이웃과 함께 듣는 '아베마리아', '오 거룩한 밤' 은 우리에게 나눔과 형제애를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현화진 기자

● 지곡 성당 대림 2차 특강



지곡 성당(주임=김병운 신부)은 지난 12월 17일(월) 두 번째 대림특강을 열었다.

김선태 전주가톨릭신학원장 신부가 '그 나라를 위해 다시 태어나자' 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비롯되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의했다.

그리고 여러 복음의 비유를 들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성탄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역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성탄의 참다운 뜻을 맛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채운 신자들은 이번 성탄을 위해 가족 안에서 그리고 가족을 벗어나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자는 강의 마무리에 동참했다. |김영수, 이미원 기자

김현숙 안과 (전 한빛안과 원장)
안성형수술 (만명이상 경험)
사시 및 소이안과 수술 (10년이상 경험)
과제용 아우구스티노 / 김현숙 레지나
Tel:(063)226-1116
전주시 중화산동 본병원옆 건물
3층-진료실, 4층-수술실, 안경원

김정홍 국내산 새우젓 각종 젓갈, 소금 식용, 건어물류
서해젓집
동부 민물 건강원
(각종 중탕 및 과일잡)
심천동 농협공판장 내
227-8111 / 011-675-0091
엄정례(리디아)

17년 역사 수맥들침대
- 공작 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로로
전주 1588-5335

대학병원 처방 전문
대 학 종 로 약 국
약사 정귀진(요셉)
배석환(엘리아)
한중옥(크리스티나)
전북대학병원 제2주차장 앞
☎(063)274-5425, FAX274-5424

<익산> 한빛정형외과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리)
- 저녁 8시까지 진료합니다 -
☎ 837-2222~4
(영등동 제일차 APT옆)

이전개업(구 '칸보석')
보석전문점 헤르세
이동주(도비아) 박영실(헤레나)
서신동 호남문고 맞은편
063)275-0076 / 011)9215-9900

자연이 준 생명 한의원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비토리오) 오서진(마르가리타)
문의 : 063-253-2599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특정아전)
강삼신(안셀모) 최유미(안젤라)
매주 토요일 오전 무료 법률상담
전주 노동부청사 정문앞(3층 건물)
☎(063)253-3750~1, FAX : (063)253-3263

● 소룡동 성당 최양업 성경대학 졸업식



소룡동 성당(주임=이명재 신부)은 지난 12월 16일(주일) '최양업 성경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14명의 졸업생들은 성경 필사본을 미사예물로 봉헌했으며, 별도 마련한 행사를 통하여 졸업장과 함께 개근상, 우등상, 공로상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최양업 성경대학'은 만60세 이상의 소룡동 교회신자 29명과 봉사자 그리고 교수요원으로 2004년 4월 29일 개교하였으며, 교리와 강론, 성경통독과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을 3년 8개월간 운영했다. 한 졸업생은 "나이 탓에 배움이 항상 안타까웠다."며 젊은 날에 성경을 가까이 할 것을 당부하여 신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권윤달 기자

● 신태인 성당 소박한 지향의 기도 모임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은 지난 11월 21일(수)부터 매일 밤 10시에 한 시간 동안 조용한 가운데 소박한 기도를 올린다. 평소 기도예 목말라하던 신자들이 모여 드리는 성체 조배를 통해 하느님 은혜에 감사 드린다. 부제서품을 앞두고 있는 신학생을 위한 기도이며, 2008년 본당 설립 80주년을 뜻있게 맞이하고 본당 신자들의 가정 성화를 위한 지향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연말의 모든 사회모임을 뒤로하고 참여하는 신자들의 은혜로운 시간은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계속 이어진다. |이선숙 기자

● 전국 전산사제 및 실무자회의 개최

지난 12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이틀동안 전주교구에서 주관한 전국 전산사제 및 실무자회의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교구청에서 첫날 전산사제단 회의와 이병호 주교와의 환담, 둘째날 전산사제 및 실무자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전국 교구내 본당의 행정업무 표준화를 위한 '통합 양업시스템' 개발과 관련, 서울대교구의 프리젠테이션과 참석자간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홍보국 취재

● 동산동 성당 견진성사

동산동 성당(주임=이원철 신부)은 지난 12월 16일(주일) 교중미사 중에 신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가졌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에서 "우리가 성령이 부족하다 느낄 때 하느님께 구하면 하느님께서 내려주시 것"이라며 성령을 통한 나눔을 강조했다. |홍보국 정례

● 신동 성당 레지오 마리에 연차 총친목회

신동 성당(주임=이사정 신부) 레지오 마리에 연차 총친목회가 지난 12월 16일(주일)에 열렸다. 올해는 전 브레시디움 단원이 참여하여 친목을 다지는데 뜻을 두고 웃음으로 진행됐다.

친목회를 통해 단원들은 서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내년에도 성모님의 군대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됐다. |손희정 기자

● 서일 성당 성서대학 수료식

서일 성당(주임=권완성 신부)은 지난 12월 20일(목) 성서대학 31명에 대한 수료식을 소성당에서 거행하였다.

성서대학은 1년과정으로 5개반으로 운영되었으며, 박고로나(성 바오로딸 수도회)수녀가 매주 성서를 아주 재미있고 알기쉽게 가르쳐 성서를 이해하고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김대식 기자

<p>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우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p>	<p>성지순례 127차 2008년 1월 2일~12일(10박 11일)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128차 2008년 1월 10일~23일(13박 14일)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아씨시, 루르드, 프랑스, 파리 2008년 1월 저렴한 경비, 보람된 여정으로 은총속에 출발합니다. 전일관광 조선(안포니오)288-6666</p>	<p>She's Clinic(쉬즈성형외과) 디에프 피부비만성형network 전주점 전신지방흡입 · 지방이식 · 중증여드름 · 비만 · IPL 원장 김영덕(라파엘) 김혜영(에스텔) 문의 228-4232 / 위치 : 남전주전화국사거리(구, 유수연성형외과)</p>
<p>의료법인 영 의료재단(한방·양방 협진) 익산효양병원 저렴한 요양비로 어르신들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 ☎ 016-335-8175 상담전화 : (063)858-9998 주소 : 익산시 모현동1가 245-5</p>	<p>수액 · 수세미즙 참살이 수세미 농원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유기농 재배(무농약 인증) 박미나(세실리아) 063)255-8090, 010-6536-1117</p>	<p>2008 박석호(요한보스코)011-671-6196 *매학기 등록금의 30% 장학혜택(야간) ●지원자격: 고교졸업이상(수능무관) ●모집기간: ~2008.1.18(금) ●문의: 김석호(요한보스코)011-671-6196 담당교수 : 010-3937-9022</p> <p>아동 입양 상담 및 후원 상담 문의 : 02)764-4741~3 http://www.성가정입양원.com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p>



교구장 일정

- **평화의 날 미사**
1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중앙
- **주님공현 대축일 미사**
1월 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상삼례

미사 · 행사 · 모임

- **천동연 겨울 한마당**
1월 5일(토)~6일(주일) 해월리
- **군산 하나회 미사**
1월 6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 **성모기사회 모임**
1월 5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 **포콜라레 모임**
1월 6일(주일) 오후 2시
장소: 가톨릭센터(시청앞) 3층 회의실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1월 3일(목) 오전 10시 덕진
- **젊은이 영상 기도 모임**
1월 8일(화) 오후 7시 전주 바오로딸서원
문의: 252-3398
- **전주교구 화요 기도회**
방학: 12월 25일(화)~2008년 2월 5일
개강: 2008년 2월 12일(화)
장소: 가톨릭 센터(시청앞)
주관: 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교육, 피정, 연수

- **유치원분과 교사 피정**
1월 5일(토)~6일(주일) 담양 대건센터
- **청년전례부, 성가대연수봉사자 OT**
1월 6일(주일)
- **미혼 젊은이를 위한 40차 선택주말**
2008년 1월 11일(금) 오후 7시~
13일(주일) 오후 5시
장소: 나바위 피정의 집
문의 및 접수: 230-1021 가정사목부
선택대표: 011-1778-6618
FAX: 230-1063

기타

- **제 49차 세계성체대회 한국 천주교 공식 참가단 모집**
한국대표 최기산 주교님과 함께하는 공식 성체 경배 여정
일시: 2008년 6월 14일(토)~
26일(목) 12박 13일
장소: 캐나다 퀘벡시
주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성체
대상: 만 18세 이상 신자
참가비: 355만원
(퀘벡 대회본부 등록비 포함)
신청방법: www.cbck.or.kr 참조
신청마감: 2008년 1월 31일까지(선착순)
문의: 02-460-7683, 7515
cei2008@cbck.or.kr

- **2008년도 제5기 가정상담 봉사자 학교 기간:**
1학기 2008년 3월 6일~6월 26일
2학기 2008년 9월 4일~12월 11일
매주 목 오후 2시~4시 30분 총 75시간
장소: 새교구청 4층 강당
접수마감: 2008년 1월 31일
수강료: 매 학기 12만원
문의 및 접수: 가정사목부
230-1030
가정사목 신부 김정민
016-654-2439

전주가톨릭신학원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2년제)

1. 모집인원 :
교리교육과, 성서교육과(주간)-50명,
신앙연수과(야간)-50명 / 성서연수과: 지역별
2. 지원자격
1)수도자 및 평신도 남·여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2)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지 1년 이상 된자
(단, 성서연수과는 제외)
3. 원서교부와 접수 :
1)기간: 2008년 1월 18일(금)까지
2)교부장소: 전주가톨릭신학원, 교구청 1층
안내실, 각 분당 사무실
3)접수: 전주가톨릭신학원(우편접수 가능)
- 4)면접: 2008. 1. 19(토) 오전 10시
전주가톨릭신학원
*자세한 문의는 분당사무실과 신학원행정
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원 행정실: 063-255-2678)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름이 범벅된 돌 틈 사이에 작은 계와 고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마 어찌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생명체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덩어리로 범벅된 소근리 갯벌에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돌과 모래를 정성스레 닦았으며, 기름이 스며든 땅에서 닦아도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기름을 묻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서해안 일대의 기름제거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우리의 손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에 죽어가고 있는 서해안에 생명을 되찾아 주는 손길에 함께 합시다.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는 서해안 기름제거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실 신자들은 사회사목국으로 신청하십시오.

- 아 래 -

1. 본당별 참여시: **태안군청(전화: 041-670-2644, 2647, http://www.taean.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개인별 참여시: 교구 사회사목국
(284-5290, 230-1073~5)
가. 봉사기간: 12월 22일~2008년 3월 15일까지(잠정적)
나. 신청기간: 매주 목요일 오후6시까지
(인원 조정으로 꼭 필요함)
다. 출발: 매주 토요일 시청 민원실 앞 오전 5시30분 출발
라. 도착시간: 오후 6시30분
※ 개인준비물: 식사, 장화, 고무장갑, 헌옷, 우의, 마스크
바다 바람이 많이 불어 따뜻한 복장 착용(내복착용 필수)

2008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종교미술학부 편입생 모집

모집인원: 회화 / 조소전공 14명
(학사편입 5명 포함)
원서접수: 2008. 1. 17~1.18
(1호선 간석역 도보 5분)
문의처: 교무과(032)438-8131~4
*2008년 8월 충도국제도시 제2캠퍼스로 이전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규약성경 입문과정(2년)
· 자격: 고졸정도의 학력소유자(교과초월)
· 원서교부: 인터넷, 전국 바오로딸, 성바오로 서원
· 접수: 2008년 1월 20일까지
(www.paulineible.or.kr)
· 문의: 029440-819~824 성바오로딸수도회

◆ 새 교구청 사제관성당에서 성무일도를 겸한 새벽 6시 미사 (월~토) 신자들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북전주 지구 본당 소식

덕진

주임신부: 272-5303 사무실: 272-5302 주임신부: 변 선배
수녀원: 272-5304 유저원: 252-0384 서목화장: 이원석
F A X: 271-1937

- ◎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 ◎ 단체가입을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
- ◎ 가정-단체-본당-교구가 한몸을 이루는 공동체
- 1. 미사안내: ① 2007년 송년미사- 31일(월) 후9시 (특전미사)
- ② 1월1일(화)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주일과 같음)
- 전8시, 전10시30분, 후7시
- 2. 2007년도 교무금 및 교구신축 헌금을 완납해주시고, 2008년도 교무금을 신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감사헌금: 김숙희 50만원, 권경주 5만원 * 감사합니다.
- 4. 성당청소: 1월5일(토) 후2시
- ① 결백하신 어머니 Pr. ② 상지의 옥좌 Pr. ③ 작은형제회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무실: 212-3231 주임신부: 이원철
F A X: 212-3722 수녀원: 212-3233 서목화장: 육문호

- ◎ 우리본당은: 선교와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의 해
- ◎ 성경, 성가, 기도서를 지참하시고 성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 축! 영세: 우리 본당 영세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1. 송년미사: 12월30일(주일) 후7시
- 2. 신년미사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1월1일(화) 전10시30분, 오후7시 *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3. 실비아수녀님 연례피정: 1월4일(금)~11일(금)
*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4. 사목회의: 1월8일(화) 미사후
- 5. 차주 모임 ① 꾸리아, 성소후원회- 1월6일(주일) ② 복사단체모회- 1월8일(화) 미사후 ③ 제대회- 1월10일(목) ④ 모이세회- 1월11일(금) 후7시 ⑤ 울뜨레야- 1월11일(금) 후8시

삼례

주임신부: 291-3875 사무실: 291-3874 주임신부: 김희남
F A X: 291-1678 수녀원: 291-3876 서목화장: 서승환

- ◎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 ◎ 오늘부터 1월5일까지 가정성화주간입니다.
-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1월1일(화) 전10시 * 의무 축일입니다.
- 1. 송년미사: 31일(월) 후8시
- 2. 2008년도 교구 신년 하례식: 1월3일(목) 전10시30분, 중앙성당
- 3. 본당의 성작과 성함을 봉헌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에 연락주시시오.
- 4. L.M 연차 총친목회: 30일(일) 후2시
- 5. 성모회 임원 명단: 회장-이정자, 부회장-이연성, 총무-최혜자, 회계-이명숙 * 수고해주세요.
- 6. 구역(반)장 월례회: 1월4일(금) 후7시
- 7. 감사헌금: 강창수, 이영애, 김춘례 각 5만원, 익명 십만원
- 8. 성당청소: 여성A * 세대당 한분씩 꼭 참여바람.
- 교무금: 4,265,000원

숲정이

주임신부: 276-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한봉섭
보좌신부: 252-1606 F A X: 274-9692 보좌신부: 이용재
수녀원: 252-9567 서목화장: 권영근

- ◎ 성 가정축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 ◎ 2007년 교무금, 새 교구청 신축헌금을 완납하여 주시고, 2008년도 교무금을 신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금주모임: 요한회- 교중미사 후
- 2. 차주모임: 꾸리아- 교중미사 후
- 3.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1월1일(화) 의무축일이므로 미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 미사안내 - 전10시30분, 후7시30분.
- 4. 2008년 교구 신년 하례식: 1월3일(목) 전10시30분, 중앙성당
- 5. 성체강복 및 가정기도: 1월 3일(목) 저녁미사 후.
- 6. 하상회: 1월 4일(금) 후8시.
- 7. 오늘 이주사목 후원의 밤을 위한 2차헌금이 있었습니다.
- 8. 금주청소 및 차주미사안내: 천사의 모후Pr. (구세주의 모후Cu.)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무실: 291-0832 주임신부: 김준호
수녀원: 291-0833 익산교소: 291-3380 서목화장: 소영길

- ◎ 오늘 주일은 성가정주일입니다.
- ◎ 예비신자 입교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 송년미사: 31일(월)저녁8시
- 2. 신년미사 및 성체강복: 1월1일(화)전10시30분
- 3. 주님 공현 대축일(1월6일) 오전10시30분
* 주교님 주례 미사 많은 참석 바랍니다
- 4. 금주모임: 사목회 월례회 저녁 (7시30분)
- 5. 차주모임: 꾸리아 월례회 저녁 (7시30분)
- 6. 2008년도 교무금 신입, 봉헌 받습니다.
- 7. 성당청소: 천사의 모후, 죄인의 의탁

솔내

주임신부: 276-2780 보좌신부: 276-2779 주임신부: 박종근
사무실: 254-2777 수녀원: 253-2776 보좌신부: 김연희
FAX: 277-2780 서목화장: 문영환

- ◎ 성탄절 예술제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가톨릭센터 신축금과 2007년도 교무금을 완납하여 주시고, 2008년도 교무금을 신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월1일(신년미사)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주일과 같은 의무축일. 미사시간은 주일과 같습니다.
- 1. 금주모임
① 30일(주일) 교중미사 후- 요셉회, 저녁미사 후- 청년회 월례회의
② 송년미사: 31일(월) 19시 (새벽미사는 없습니다)
③ 신년하례식: 1월3일(목) 10시30분 중앙성당
- 2. 차주모임 ① 꾸리아- 1월6일(주일) 교중미사 후 ② 사목회- 1월 8일(화) 저녁미사 후 ③ 구역반장 월례회의- 1월9일(수) 11시15분
④ 봉성체- 1월10일(목) 10시부터
- 3. 감사헌금: 김성용 30만, 송희상, 노희충 각 10만, 강민석 54,700원, 이상우 3만원
■ 자선주일 2차헌금: 1,023,300원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무실: 274-1004 주임신부: 나궁영
F A X: 254-8591 수녀원: 254-1142 보좌신부: 김중영
서목화장: 박병래

- 1. 오늘의 모임: 요셉회, 홍보분과 월례회 - 교중미사 후
- 2. 송년미사: 31일(월) 후10시
- 3.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1일(화) 전10시30분, 후7시
- 4. 성모신심 미사: 1월5일(토) 전9시30분
- 5. 금주 본당청소: 20구역- 1월5일(토) 전9시30분

팔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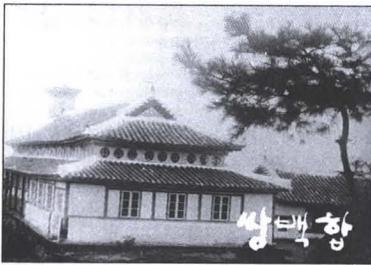
주임신부: 211-8044 사무실: 211-8043 주임신부: 최중수
F A X: 211-8045 서목화장: 최병오

- ◎ 성탄 예술제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성가정을 이룹시다.
- ◎ 교무금, 센터 신축헌금 완납, 2008년 교무금 신입 바랍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2008년은 성서 통독을 모두 마치도록 합시다.
- 1. 미사안내 ① 송년미사- 31일(월) 후7시30분 (대축일 특전)
② 신년미사(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1월1일(화) 전10시
- 2. 차주 청소 및 증식담당: 3구역 7반, 1월5일(토) 후2시
- 3. 차주 모임 ① 요셉회- 전 9시
② 울뜨레야, 대건형제회, 팔복자매회- 교중미사 후
- 4. 도움 주신 분: 최병오(베드로) 30만원 * 감사합니다.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12월 22일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납 부 액	비 율
본 당	15,000,000	13,132,268	87.55%
사 제 단	1,000,000	1,438,444	143.84%
개인및 타지역(특별헌금)	1,500,000	824,560	54.97%
수 익 사 업	500,000	232,824	46.56%
합 계	18,000,000	15,628,096	86.82%



‘쌍백합’ 겨울호(제 19호)가 나왔습니다

이번호 쌍백합은 전주교구 교육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는 특집 기사와 함께 다양한 영성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쌍백합

정기구독신청

전주교구청 홍보국

문의 : (063) 230-1037

후원 계좌번호 : 전북은행

505-13-0313012 전주교유지재단

♣ ‘이주사목 후원의 밤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

-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 이주민과 함께 뜻있게 -



전주교구 가톨릭 합창단(단장=서영수)이 주관하고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회장=서동호)가 후원하는 이주사목을 후원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톨릭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로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낯선 문화와 언어, 풍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열리며 수익금은 전액 이주사목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교구 가톨릭 합창단과 산하 Adoro te중창단, 교구체리티챔버단, 교구 사제 및 신학생 중창단, 필리핀 이주민 합창단이 참여하며 소프라노 박양숙, 문자희, 조신옥, 박진주, 테너 신운정, 베이스 김석원이 특별출연 저무는 한해의 끝자락을 아름다운 노래와 화음으로 장식하는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07년 12월 30일(주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우전성당